

# ‘피동갑’ 넘으면 어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 ‘옥중화’ 고수·진세연 16살차... ‘조들호’ 박신양·강소라 22살이나 드라마 속 남녀주인공 ‘달달 케미’에 나이 차 생각 안나



‘옥중화’ 고수·진세연

15살, 17살, 22살... 요즘 TV 드라마에 나오는 남녀주인공의 나이 차이다.

“내가 첫사랑에 실패만 안 했어도 너만한 딸이 있어”라는 문장이 떠오를 정도로 큰 나이 차이에 입이 떡 벌어지지만, 드라마 속 ‘케미’(인물간 어울림)는 의외로 나쁘지 않다.

때로는 듣직한 남자, 때로는 나이 차를 무시하게 하는 동료이자 친구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드라마 속 커플들을 모아봤다.

◇“오빠만 믿고 따라와”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커플=MBC TV 주말극 ‘옥중화’를 통해 오랜만에 브라운관으로 돌아온 고수(38)는 16살 차이의 진세연(22)과 호흡을 맞춘다. 두 사람은 각각 윤원형의 서자이자 조선상단을 이끄는 미스터리한 인물인 윤태원과 전옥서(조선시대 교도소)에서 나고 자란 옥녀 역할을 맡았다.

드라마에서 윤태원과 옥녀의 첫 만남이 고수, 진세연의 만남이 아닌 고수와 옥녀의 아역을 맡은 정다빈의 만남으로 그려질 만큼 드라마 상으로도 두 사람의 나이 차는 크다.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에서 앙숙에서 마음이 맞는 동료가 되는 조들호와 이은조를 연기하는 박신양(48)과 강소라(26)는 무려 22살 차이이다.

조들호는 검사에서 노숙자로, 다시 변호사로 변신하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고 이은조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던 초짜 변호사라는 점에서 이 나이 차이는 오히려 현실적이다.

◇‘연기신(神)’, 아이돌 속성 과외 중=MBC ‘킬미 힐미’에서 뛰어난 연기력으로 찬사를 받았던 경력 18년 차 배우 지성(39)은 SBS TV 수목드라마 ‘판따라’에서 tvN ‘응답하라 1988’을 통해 이제 막 배우라는 타이틀을 단 혜리(22)와 호흡을 맞춘다.

17년이라는 나이 차이를 의식해서인지 극 중 지성이 맡은 신석호와 혜리가 맡은 그리은 남녀관계로 급속히 가까워지기보다는 동료로서 가까워지는 모습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있다.

전작 SBS ‘리멤버-아들의 전쟁’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연기력을 보여줬던 남궁민(38)은 SBS ‘미녀 공심이’에서 혜리와

같은 그룹 걸스데이의 민아(23)와 호흡을 맞춘다.

몇 번의 조연 경험이 연기 경험의 다일 정도로 배우로서의 경력이 거의 없는 민아지만 전체 리딩 전에 젊은 주연 4명만 따로 연습하도록 한 ‘미녀 공심이’의 백수찬 PD의 배려 덕에 극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나이가 무슨 상관” 역전된 관계=이미 종영했지만 KBS 2TV ‘태양의 후예’의 서대영 역을 맡은 배우 진구(36)와 유명 주역의 김지원(24)도 12살 차이로 ‘피동갑’이었다.

절절한 러브라인이 이어지는 가운데 12살 어린 김지원이 직급을 내세워 진구에게 “귀하는 상급자에게 경례도 안 하고 가나?”, “다치지 마십시오. 명령입니다” 등의 명령조 대사로 애정표현을 하는 모습은 신선하기까지 했다.

마찬가지로 최근 종영한 MBC 주말극 ‘결혼계약’의 이서진(45)과 유이(28)도 무려 17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서진이 젊었을 때는 재벌 2세 한지훈으로, 유이가 7살 딸을 둔, 철이 잔뜩 든 싱글맘으로 설정해 극에서는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무시됐다.

◇불확실성 줄이는 선택·남배우 임대 영향도=SBS ‘판따라’를 맡은 이용석 SBS EP는 이러한 트렌드가 생긴 것은 제작비 상승 등 드라마 산업의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예전보다 드라마 산업이 어려워졌고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생겼다. 연기적으로나 인지도 면에서 안정성이 있는 배우가 있어야 드라마의 사업이나 협찬 등을 통한 수입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많은 경우 남자배우가 그런 역할을 맡게 되고, 그 무게감을 조금 덜어내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 아이돌 출신이나 젊은 여자배우를 캐스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유아인, 이민호, 주원을 비롯한 30세 전후의 젊은 남자 스타들이 잇따라 임대를 했거나 곧 임대를 앞둔 상황도 이런 캐스팅에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한다.

# “유쾌한 캐릭터, 고민 없이 결정했죠”

### 영화 ‘굿바이 싱글’ 사고뭉치 톱스타 역 김혜수

배우 김혜수는 신작 영화 ‘굿바이 싱글’에서 사고뭉치 톱스타 ‘주연’ 역을 맡아 전작인 영화 ‘차이나타운’이나 드라마 ‘시그널’과는 180도 다른 연기변신을 했다.

김혜수는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23일 열린 ‘굿바이 싱글’ 팬페스트에서 “‘굿바이 싱글’은 ‘차이나타운’, ‘시그널’보다 먼저 선택한 작품”이라며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쾌하고 캐릭터가 살아 있어 고민 없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잘 아는 직업군이어서 친숙하면서도 정신이 성장하지 않은 사고뭉치 역할이라 나랑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김혜수와 ‘주연’을 구분하는 스타프가 없었다”고 웃었다.

‘굿바이 싱글’은 스캔들을 몰고 다니는 톱스타 ‘주연’이 내려가는 인기와 남자친구의 공개적 배신에 충격을 받고 ‘임신 스캔들’을 일으키는 코믹 영화다.



연습중

# 강인, 또 음주 운전사고 “활동 중단”

### 2009년 뺑소니 사고 이후 두번째

SM엔터테인먼트는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낸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본명 김영은·31)이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

SM은 “강인은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인은 이날 오전 2시께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인은 당시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 이상이었다고 전해졌다.

강인이 물의를 일으킨 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9년 9월 술집 폭행 사건에 연루된 데 이어 그해 10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까지 내 활동을 중단했다. 자숙의 시간을 보낸 뒤 2010년 7월 슈퍼주니어 멤버 중 가장 먼저 입대했지만 제대 후인 지난해에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입건됐다.



연습중

TV 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PD의 자연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25 TV블로그 품지락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방송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병 우리말(재)	00 수상한 휴가(재)	00 청사 55주년 특별기획 (옥중화)(재)	00 닥터 365 05 정은표의 세계문화유산순례 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12	00 KBS 뉴스 12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신)(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good-bye, 미스터블랙)(재)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 55 테마스페셜 55 TV 블로그 품지락
1	00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별별가족			
2	00 UHD 특집 영상다큐 몸의 소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텔레문스터(재) 25 드림주니어 스페셜 55 텔레문스터(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3	05 한국인의 밥상(재) 55 튜튼생활체조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이하 동물탐험대 55 모두모두 쇼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애슬론 풋볼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필통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품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5 일일연속극 (별난가족)	30 글로벌 24 55 동네스타 전국방송 내보내기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론 '10'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신)	00 수목미니시리즈 (운빨로맨스)	00 드라마 스페셜 (판따라)
11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보컬전쟁 신의 목소리
12	50 동행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더 다이어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에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병의 대역주 노르웨이)	10:30 최고의 요리비결 (생방송 조림과 삼치구이) 11:00 세계테마기행(재) 11:4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초대석 13:40 사이틴3 13:50 이암 스페이스 정글 14:00 짬과 팜 14:30 미앤마이로봇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꼬마철학자 학교 15:35 호기심나라 오키도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6:00 출동! 슈퍼왕스(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덩동덩 유치원 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뽕뽕뽕 뽕뽕로(재) 18:00 생방송 특집!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이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0:40 다구 오늘 (바다에서 강으로)	20:50 세계테마기행 (미지의 땅, 내륙 동남부 기행 3부 코에 장신구를 한 여인, 림부족) 21:30 한국기행 (내 마음의 울릉도 3부 어부 바다를 품다) 21:50 EBS 다큐 프리덤 (3부 민주주의의 우선한다) 22:45 극한직업 (죽방렴 멸치잡이) 23:35 장수의 비밀 24:05 지식채널 e 24:10 한국영화특선 (줄지 아니한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5일(음 4월 19일 丁未)
子	48년생 몇 차례의 중간 점검이 필요하므로 세심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60년생 상대가 심경의 변화를 보일 수도 있겠다. 72년생 훨씬 앞당겨져서 처리되는 세계이다. 84년생 중복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92, 35	42년생 돌발 상황이 예상되니 확실히 대비해야만 한다. 54년생 지나친 기교가 오히려 불필요함을 야기할 수도 있으니 실질 위주로 임하라. 66년생 양자 사이를 잘 조율할 필요가 있느니라. 78년생 우연히 마주칠 수다. 행운의 숫자 : 61, 88
丑	49년생 한 번 지적 되면 술술 풀려나올 것이니라. 61년생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다. 73년생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느니라. 85년생 유동적이나 변수의 폭까지 감안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02, 06	43년생 실행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한다. 55년생 중간에서 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처신을 잘해야 할 것이다. 67년생 겸손하다면 난관을 기화로 만들 수도 있다. 79년생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운의 숫자 : 21, 85
寅	50년생 이는 길도 물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62년생 통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느니라. 74년생 만사를 제쳐두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맞다. 86년생 잠깐의 요동이 있을 수나 곧 안정될 것이니 염려 마라. 행운의 숫자 : 03, 32	44년생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차차 쉬워질 것이다. 56년생 계획 대로 추진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68년생 중복될 수도 있으니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80년생 용기보다는 지혜가 앞서야 할 판세이다. 행운의 숫자 : 08, 93
卯	51년생 원칙을 준수하고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63년생 이상적인 것도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라. 75년생 본능적인 의욕을 방탕한 이성으로 완전히 절제하자. 87년생 노출시켜서 좋은 일만 얻어 전혀 없다. 행운의 숫자 : 20, 33	45년생 자신감을 갖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57년생 진보하지 않는다면 때밀러날 것인데 틀림없다. 69년생 이는 길도 물어 가는 것이 안전하다. 81년생 필요하다면 찾아가서 청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행운의 숫자 : 22, 70
辰	40년생 상대로부터 신뢰를 얻는다. 52년생 사소한 것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64년생 모르고 있으면 더 나은 한 일이 보인다. 76년생 미묘한 차이가 변수를 보이리라. 88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행운의 숫자 : 74, 46	46년생 기다리 잡히는 시점이다. 58년생 허구한다면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70년생 소심하게 알기 전까지는 속단을 내리지 말아야한다. 82년생 상대를 존중해 준다면 무궁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5, 81
巳	41년생 두드러지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53년생 의도는 좋으나 때와 장소를 가려야만 한다. 65년생 세분화되면서 점점 복잡해진다. 77년생 절제 속에서만이 건설한 진보가 있을 것이다. 89년생 성격이 맞아져 재정을 발라리라. 행운의 숫자 : 48, 83	47년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형국에 놓여 있다. 59년생 여기서 틀어지면 막판에 이를 수도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임하라. 71년생 현실에 충실 하는 것이 옳다. 83년생 누구도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근골스라움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7, 7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